

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 개정 후속조치 요청

1 추진 배경

- 대다수 논문에 연구자의 '소속'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, 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
-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(교육부 훈령) 개정('18.7.17)

2 주요 개정내용

- (정보공개)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힘
 - ※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,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'학생'임을 논문에 밝힘
- (확인/관리)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,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
 - 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
 - ※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, 직위, 재학년도 표시
 - ※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, 직위도 파악
- (자료제출)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

< 논문 저자 정보 관리 체계 >

주체	주요 역할
연구자	- 논문 작성 시 소속, 직위를 밝힘 ex) 00고등학교(학생)
학술단체 대학	-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 ※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, 직위, 재학년도 표시
대학	- 소속 교수, 연구자의 논문을 관리 시 해당 논문에 표시된 공동연구자의 소속, 직위를 함께 시스템에 등록, 관리 ※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, 직위도 파악
교육부	-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 항목을 포함하여 관리

3 각 주체별 요청사항

- (연구자) 논문 발표 시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표시('18.9부터 적용)

< 해외 학회지 등의 경우 저자 정보 표시 방법 >

- 해외 학회지로 저자 표시 방법 등이 달라 소속과 직위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, 논문에 직위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
- 단, 동 논문을 소속 대학에 연구결과물로 제출 시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함

<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(안) >

대상		표시할 사항
대학 소속	대학 소속 교수(전임/비전임)	성명/ 00대학/ 교수
	대학 소속 강사	성명/ 00대학/ 강사
	대학 소속 학생	성명/ 00대학/ 학생
	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	성명/ 00대학/ 박사후 연구원
초중등학교 소속	초중등학교 소속 학생	성명/ 00학교/ 학생
	초중등학교 소속 교사	성명/ 00학교/ 교사
기타	소속/직위가 없는 경우	성명

- (학술단체)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도 함께 표시하도록 학술지 편집규정 등 개정하고,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(소속과 직위)를 집적하여 관리
 - ※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, 직위,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
 - ※ 가급적 조속히 관련 학술단체의 규정을 개정하여 '19.12까지 규정 개정 완료 요청
- (대학) 소속 교원 등의 논문을 관리 시, 논문 저자인 소속 교직원과 공동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도 포함하여 집적하여 관리
 - ※ 가급적 조속히 관련 시스템 등을 개편하여 '19.12까지 시스템 등 개편 완료 요청

< (예시) 00대학 연구결과물 집적 시스템(안) >

논문명	논문저자정보			
	1저자	2저자	교신저자
#####	00대학/ 교수/ 성명	00대학/ 교수/ 성명 00고등학교/교사 or학년/성명	00대학/ 교수/ 성명

